탑으로 솟아 〈법화경〉 증명하는 '다보여래'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⑯ 다보여래와 법화경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의 탑이 나타났다.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세로가 250유순이나 되는 탑이 땅에서 솟아 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으며 5000의 난간과 1000만의 감실이 있고 수없는 깃대와 깃발로 꾸며져 있었다. 그때 보탑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려 나와 찬탄하였다.

"훌륭하고도 훌륭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호념하시는 법화의 가르침을 대중을 위해 설하시나니, 말씀 그대로고 말씀 그대로이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하나이다."

사부대중은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며, 또 탑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다 법희(法喜)를 얻었으며, 전에 없던 일이라 특이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다.

대요설(大樂說)보살이 천인, 인간, 아수라들이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무슨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 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이 탑 안에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느니라. 그 옛날 동방의 한량없는 1000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한 나라가 있었으니 보정(寶淨)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다보(多寶)였느니라. 그 부처님 보살도를 닦으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만약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에 시방국토 그 어디든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 있으면, 나의 탑이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와 증명을 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멸도하실 때에 천상과 인간 세상, 사람 모인 가운데서 비구들에 이르셨다.

'내가 멸도 후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려 하는 이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우라' 고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 신통과 원력으로써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만약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저 보탑이 꼭 그 앞에 솟아나고 부처님의 전신이 탑 안에 계셔서,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라고 찬탄하시리니 대요설이여, 지금도 다보여래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나 찬탄해 이르시되,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고 하신 것이니라."

땅에서 탑이 솟아 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견보탑품〉의 이 대목은 다보여래와 〈법화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원래 다보여래는 동방 보정(寶淨) 세계의 교주이시다. 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땅에서 탑으로 솟아나와 그 탑 속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찬탄하고 경전의 법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탑이 바로 다보탑이다. 우리나라 불국사에 있는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이 다보여래의 원력을 상징하는 탑으로 〈법화경〉을 찬탄하고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보탑은 부처님 전신사리를 모시는 탑이다. 다보여래의 본원력으로 열반에 든 후 전신사리가 되어 여러 부처님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마다 반드시 탑으로 땅에서 솟아나와 〈법화경〉이 진실 법문임을 증명해 준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또 사리신앙과 관계가 있다. 사리는 범어 sarira의 음사된 말로 본래의 뜻은 유골(遺骨) 혹은 영골(靈骨)이라는 뜻이지만 매우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보석처럼 생긴 결정체를 말한다. 다비(茶毘)를 하여 수습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팔곡사두(八斛四斗) 곧 여덟 섬 네 말의 사리가 나왔다는 설이 있다. 이를 여덟 등분으로 나누어 모셨다는 것이다. 〈금광명경〉 '사신품' 에는 "사리란 계(戒)·정(定)·혜(慧)를 훈습하여 닦은 결정체이니 매우 얻기 어려운 것으로 최상의 복전(福田)이 되는 것이다."하였다. 사리를 모시기 위하여 탑을 세우는 풍습이 불교가 전해진 나라마다 생겼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수많은 사리탑을 세웠으며 우리나라는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모시고와 황룡사 탑과 통도사 계단 등에 나누어 봉안했다. 불상을 향해 예불하는 풍습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리탑을 향해 예불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十善行, 마음속에 선한 의지 있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⑯ 십선계

대승불교의 보살은 본생(本生) 보살이나 수기(授記) 보살처럼 특정한 보살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보살' 이다. 누구라도 보리심으로 서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정진해나간다면 '보살' 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이 되는 데는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승 보살의 행위 규범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승계 또는 보살계에는 이전의 칠중계와 달리 보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승불교도들은 이전에 경시되었던 십선(十善), 즉 열 가지 선한 행위에 주목하게 된다. 십선은 초기 불교경전인 〈아함경〉에 설해진 불교의 중요한 실천덕목이지만, 초기불교에서는 계(戒)로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십선은 오계(五戒)와 함께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 십선업도(十善業道) 또는 십선도(十善道)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한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히라카와 아키라(平川 彰)는 대승불교의 본래 계는 십선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기 대승불교의 보살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십선계가 중심이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계에 대한 인식이 악행을 금지하는 것에서 선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변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에 설해진 십선업도는 선인선과(善因善果)에 근거해서 10가지 선행을 실천덕목으로 규정한 것이다. 육체적 행위[身業]는 세 가지로,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릇된 음행(淫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언어적 행위[口業]는 네 가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의지적 행위[意業]는 세 가지로, 탐욕스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악인악과(惡因惡果)에 근거한 십악업도(十惡業道)이다.

십선업도는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 대승계로 인식되면서 십선계로 불리게 된다. 〈반야경〉에서는 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 즉 계바라밀(戒波羅蜜)을 "보살은 살바야(薩婆若)에 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선도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십선도를 행하게 한다"라고 설한다. 또 〈화엄경〉과 〈유마경〉 등에서도 보살이 실천해야 할 계바라밀을 십선도라고 설한다. 따라서 초기 대승불교에서 계로 대표되는 것은 십선도, 즉 십선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승 보살은 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 거짓말, 꾸미는 말, 험담, 이간질, 탐욕, 성냄, 그릇된 견해를 가짐 등의 열 가지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이 10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만약 마음속에 악한 의지가 있다면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선행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보살은 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만족한 마음, 진실한 마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부드러운 말을 하려는 마음, 화합을 도모하려는 마음, 늘 나누려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적 의미에서 십선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누구나 보살이 되어 선한 마음가짐으로 열 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⑯ 고대 인도의 성곽 도시

경전 속 '城' 형태는 방어도시?

경전의 묘사에 따르면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은 탁발을 위해 때때로 도시의 성으로 들어갔다. 이 때 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일까. 당시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특정한 읍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출입구는 일정하게 통제되고 있었다는 말이며, 주거지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의 높이와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던 것일까. 경전에서 묘사된 도시는 정말 성곽도시였으며, 그렇다면 석가모니 당시에 방어용 도시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정확히 대답해줄 수 있는 문헌학적이며 고고학적인 단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경쯤 이미 중요한 갠지스 강변의 도시들은 성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성벽은 평균적으로 두께가 3미터가 넘고 있었는데 대부분 진흙을 이용한 벽이었다. 어떤 도시는 진흙을 다지거나 그 위에 다시 구운 진흙벽돌을 쌓아올려서 성벽을 형성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도시는 그러한 흙벽의 위쪽과 바깥쪽으로 다시 돌을 쌓아 흙벽 전체를 덮어 외부 마감을 단단하게 구축한 경우도 있었다. 안쪽은 흙벽이고 바깥은 돌로 쌓은 경우다.

마투라(Mathura)처럼 강(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는 강을 배수진으로 삼고 나머지 면을 성곽이 둘러싸고 있으며, 산의 능선을 이용해 방호벽을 구축한 경우도 있다. 바다미(Badami)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보듯이, 도시국가의 중심부는 때때로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 불경 속의 대표적인 도시 라자그리하(Rājagṛha 왕사성)도 그러한 곳이다. 라자그리하는 붓다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로 석가모니는 이곳을 빈번히 방문하여 설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불교사원지 죽림정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멸후 1차 결집이 이루어진 장소도 이 도시에 있으며 〈법화경〉의 설법지로 부르는 영축산(靈鷲山)도 이곳의 명성에 의탁해 있다. 많은 불교신자와 자이나교 순례자를 부르는 이 도시는 고대 수도로서의 명망에 걸맞게 여러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그려진다.

이 도시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시의 둘레는, 당시의 명성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꽤나 큰 규모를 보여준다. 마가다국의 수도 경계를 말해주는 성곽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라자그리하의 도시가 놓인 지형을 보자. 특이하게 라자그리하는 두 겹의 긴 산능선 사이에 놓여있다. 이 수평으로 놓인 두 겹의 자연적인 산맥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연적인 방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흔히 우리가 '올드 라자그리하' 라고 부르는 옛 수도지역은 이 산맥 사이에 놓이고, '뉴라자그리하' 라고 부르는 그 후의 수도지역은 두 겹의 산맥 사이가 아니라 두 겹의 능선 너머 북쪽 끝에 놓이게 된다. 능선을 넘어 남쪽에 있는 올드 라자그리하는 자연스럽게 분지의 형태를 갖추면서 그를 둘러싼 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이 성벽은 1차적인 수도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산성은 대략 300m 고지 위에 돌을 이용해 쌓았다. 두 겹의 산을 감싸는 형태로 산성을 쌓았는데, 규암 등의 편석을 이용한 3~4m 높이의 산성 흔적이 남아있다. 이 라자그리하의 외부 산성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영역 안쪽의 산허리에는 크고 작은 자이나교와 불교의 사원과 유적들이 산재한다. 이 산성이 언제 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산성이 감싸고 있는 산 아래의 계곡에 다시 올드 라자그리하의 내부 성곽이 존재한다. 이 내부 성곽의 둘레길이는 대략 5km 이내로 추정되는데 대략 마우리아왕조 전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내부 성곽이 석가모니 시대에 존재했다면 빔비사라왕이 아들에 의해 유폐된 감옥은 성곽 내의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 도시의 중심으로 이르는 길은 남북을 관통하는 길과 서쪽의 옛 길이 있다. 다른 도시에서 들어올 때는 서쪽의 옛 길을 택했을 것이고, 도시 외곽의 산자락에서 읍성 중심으로 진입하는 길은 남쪽과 북쪽의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석가모니도 필시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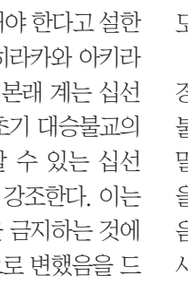
• 사찰명 : 보현사
• 주 지 : 법정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번길 4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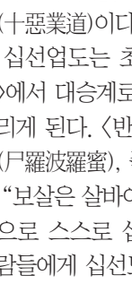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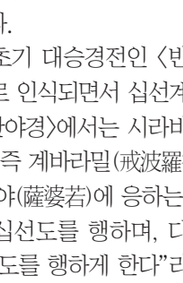
2021년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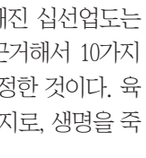
한국불교 중앙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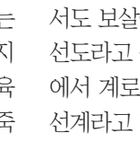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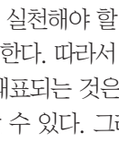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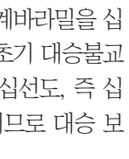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